

영광군 드론봉사단, 해상인명구조 '구슬땀'

가마미해수욕장 원활한 안전관리·해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루 2~3명 팀 구성 65명 투입

영광군은 피서철을 맞이한 가마미해수욕장의 원활한 안전관리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영광드론협회 드론봉사단이 현장에 투입하여 해상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해상인명구조 봉사활동은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드론봉사단은 하루 2~3명이 팀을 구성하여 25일간 총 65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드론봉사단은 드론을 활용하여 '익수자 발생 시 인명구조 튜브 투척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 대기 시에는 '해수욕장 안전 수칙 준수 및 폭염 시 휴식 권장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2~2023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통해 드론봉사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장비, 안전용품, 구급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 총책임을 맡은 강원영 협회장은 "피서철 해수욕장 인명사고는 초 단위를 다루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리 봉사단의 임무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드론 재능기부 공익 봉사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봉사



단원이 협심하고, 안전사고 없이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한다."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2023년 하반기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11월 30일까지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하반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입하는 경우로 지원대수는 10대이고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LPG차 전환지원신청 - 화물차신차구입 지원신청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채본부



무안군, 장마에 흘러내린 영산강변 부유 쓰레기 수거

무안군은 장마철 극한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와 지류에서 흘러내린 부유쓰레기를 골짜기 등 장비와 청소인력을 동원해 수거 처리한다.

6월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와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생활 쓰레기, 갈대 등 다량의 쓰레기가 영산강 하구까지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함에 따라 군은 부유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장마 기간 중인 지난 7월부터 영산강변 일로읍 석정포 인근과 우비마을을 시작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무안군에서는 장마가 종료됨에 따라 영산강 하구의 둔치 등에 쌓여있는 약 2,500톤의 부유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고, 8월 중 영산강변뿐만 아니라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3곳의 지천에 각 2~3명씩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하천변에 방치·정체되어 있는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하여 분리 처리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4일 영산강 청호리 인근 수해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강변에 쌓인 부유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자연경관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자원봉사, 재능기부 나설 외국인주민 찾아요"

영암군, 25일까지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단' 모집

영암군이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단' 단원을 모집한다.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단은, 재능 있고, 봉사 정신이 넘치는 이주노동자, 결

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모인. 모집된 단원들은 출신 국가별로 조직된 지역 이주민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

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환경정비 ▲방법 및 기초질서캠페인 활동 ▲통·번역 지원 등을 포함해 교육·기술·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영암군은 도울 방침이다.

귀화자, 체류자격자 등 영암 거주 외국인주민 개인 또는 단체가 이달 25일까지 단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 항목인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우수 단원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모집 내용을 볼 수 있다. 인구정책과에서 방문·이메일(leel0286@korea.kr)로 신청 접수 받고, 자세한 전화(061-470-2559) 안내도 해준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나섰다

경로당 375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함평군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붙였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열열질환 예방 및 경로당 전기세 부담을 해소코자 관내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난 8일 긴급 추가 지원했다.

추가 지원되는 냉방비는 총 2개월분으로 무더위 쉼터로 활용중인 관내 경로당 375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군은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경로당 시설도 점검하는 등 여름철 폭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중수 함평군 가족행복과장은 "폭염이 계속되는 올 여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월 1만원' 임대주택 도시민들 문의 쇄도



신안군은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현재 월 1만 원 펠리스파크 연립임대주택은 총 27호로 이변에 공급할 물량은 19호이며, 모집 기간은 8. 1~18까지이며, 신청조건은 신안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가 있으며, 무주택자이면 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만 원의 임대료와 연령별로 차등 임대료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일정대로 진행되면 8월에 모집과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안군으로 전입을 반드시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2년이며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안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에 취학 가능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임대주택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이택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